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한김벌리의 혁신적 기업문화

# 스마트워크 Smart Work



유한김벌리

- 유연한 가족친화경영
- ICT와 창의성
- 유선 전화, 종이 없는 모바일 오피스

•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집, 영업 현장, 해외 출장 등 모든 곳 실시간 근무) 구현

• 1999년 이후 정보화 지원금 혹은 모바일 기기 지급

•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 (국내 회사 중 최고 수준의 여성 사원 및 임원 비율)

• 본사 외 죽전, 군포의 스마트워크 센터, 자택 등 어떤 곳에서도 원격근무 가능

• 사내 집중 업무공간 구성으로 방해 받지 않는 업무를 위한 공간 지원

• 고정 좌석을 없앤 Open 좌석제 (직원이라면 사내 어떤 좌석이라도 이용 가능)

• 전자결재시스템과 Free zone 전화 서비스 (유선전화 없이 사내 무료 통화)

• 임원실 오픈 (비어있는 경우, 누구라도 회의실 겸용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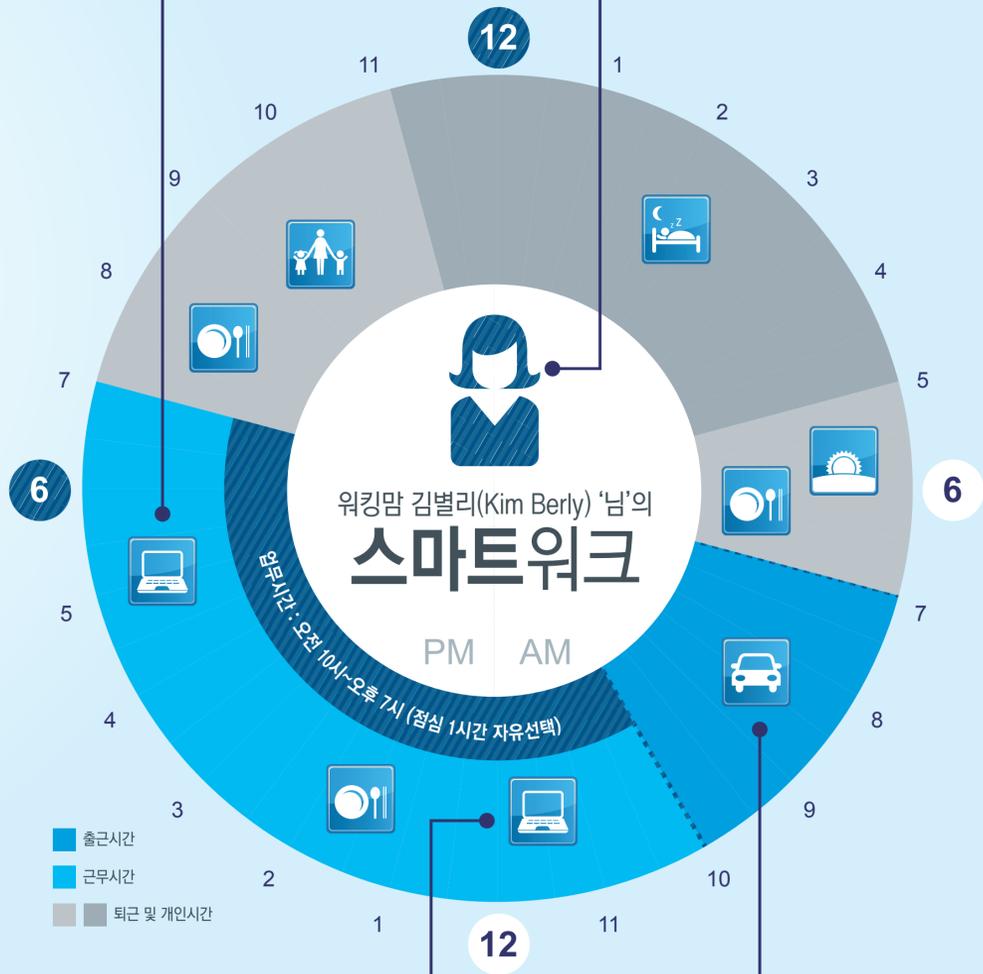
•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전사원의 호칭을 '님'으로 통일

## ☀ 유연한 업무 : 자신에게 맞는 일 선택

우리 회사는 유연한 인력 및 조직운용을 하면서 직원의 적성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고 본인이 맞는 업무를 선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 재경팀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출산 후 다이어트도 할 겸 활동적인 영업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만만치 않아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팀장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침 신제품 출시가 임박했는데 마케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재경 팀은 안정적이나 업무이동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고 마케팅 팀장님에게 저를 추천해주셔서 현재 저는 마케터로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케팅 업무를 잘 할줄은 전혀 몰랐는데 회사에서 숨겨졌던 제 적성을 찾아주셨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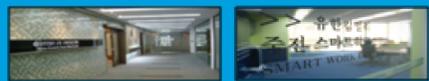
## 💡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와 대리, 과장 대신 '님'

드디어 3개월 출간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는 날! 회사에서 출산축하금이 입금되었다고 문자가 뜨네요. 직장커플인 남편도 아버지출산 유급휴가 3일을 받아 출산의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임신 기간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임신부간담회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사내 임신부 주차지정석덕분에 편안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출산 후에도 회사내 모유수유방, 보육시설도 있어서 다른 엄마들보다 아이 걱정이 덜합니다. 참! 요즘 회사 분위기는 더욱 좋다고 해요. 여성 임원이 20% 넘어서인지 사장님부터 사원까지 호칭을 직급 대신에 부드러운 느낌의 '님'으로 부른답니다. 저도 김벌리 '대리'가 아닌 김벌리 '님'으로 불리겠죠? 더욱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업무도 즐겁게 할 것 같아요.



## ☀ 자유 사무공간 : 본사, 죽전, 군포, 가정 중 선택

저희 집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어요. 2년전까지 직장과 가까운 서울 시내에서 살았지만 전세값과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이곳으로 이사했어요. 사실 이사가 가능했던 결정적 이유는 강남에 있는 본사 대신 집과 가까운 죽전이나 군포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로 근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집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 💡 시차출퇴근 : 7시~10시 중, 출근시간 맘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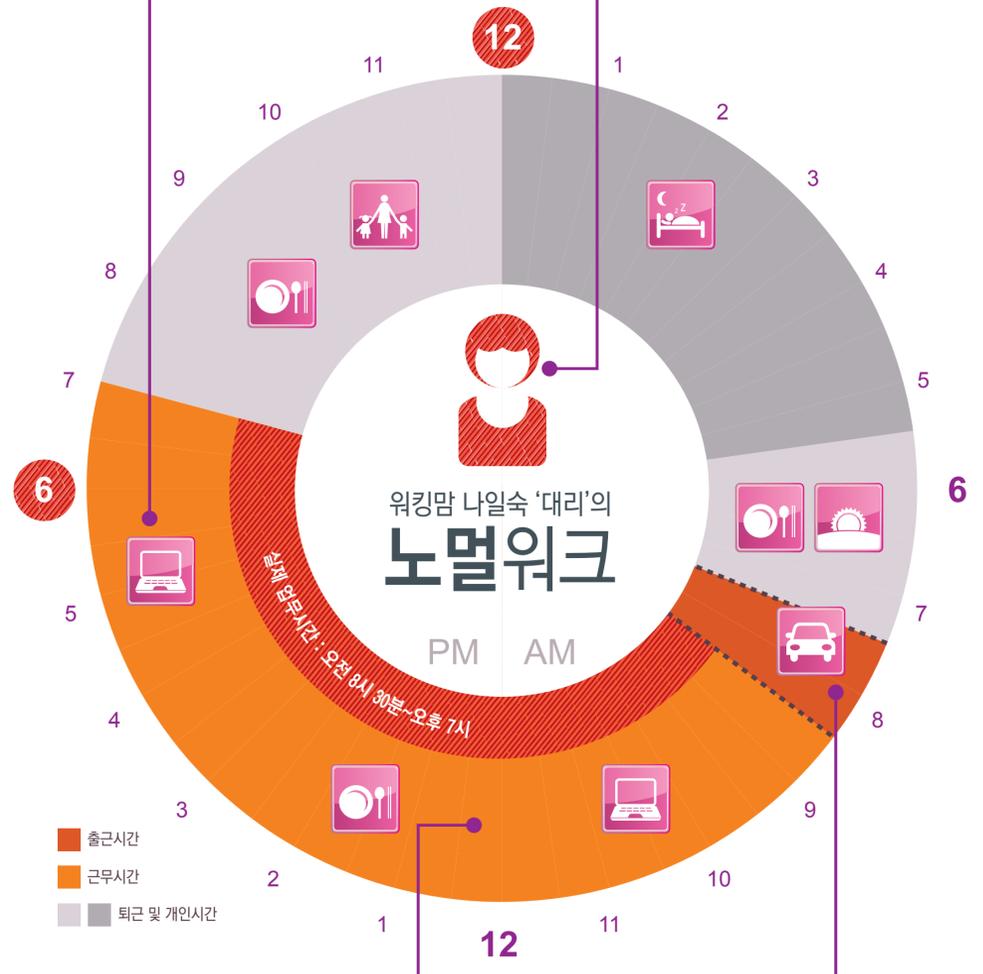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오전 7~10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이 가능해요. 저는 이른 아침 쫓기듯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하는 워킹맘이라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합니다. 얼마 전 입사한 신입사원 김성실 님도 아침 시간에 어리원을 다니고 저와 같은 시간에 업무를 보는데, 반대로 운동광인 기획실 나광은 씨는 일찍 퇴근 후 운동하느라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 합니다. 공장 생산직의 경우 4조2교대제(4일 근무, 4일 휴식)가 오래전에 정착했고, 영업직원은 현장출퇴근제(화~목 오전 11시 현장출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휴일보장, 여름과 연말 각각 한 달씩 휴가를 쓸 수 있어 꿈의 직장에 다니는 기분입니다.

## 💡 고정된 업무 : 같은 일의 연속

저는 기획부에서 업체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보통 외주업체에 일을 주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이 주업무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셀에 걸쳐 걸쳐서 검토 중 여러 번 실수를 해서 부장님, 과장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영업부 업무 지원을 다녀왔는데 제 업무보다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업부 직원들도 숨은 인재가 기획부에 있었다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지금 업무도 벌써 8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업무가 골에 익어서 어렵지는 않지만 새로운 업무를 통해 마음의 전환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서를 옮기는 것은 저희 부서 성격상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도 한 분야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애 오늘도 견적서를 들여지고 보고 있어요.

## 💡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요.

어제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매우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번 출산은 매우 힘들었어요. 사무실 후배가 말없이 퇴사하는 바람에 출산 하루 전날까지 업무에 시달렸답니다. 게다가 첫째 아이의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철없는 남편은 매일같이 술취해 2~3시에 들어오고... 요즘 현실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 큰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근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언제 퇴사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예요. 보육비, 교육비 등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도 사회 분위기는 아이를 가진 여자가 직장생활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집안일 때문에 회사에 빠지면 눈치가 보이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업무는 맡기지 않고 단순한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 💡 회의실 확보 전쟁 : 내 공간도 부족한데...

회의가 많은 우리 회사! 하지만 회의실이 부족해 부서마다 회의실 확보에 비장이에요. 그나마 사장님 또는 상무님, 이사님께서 회의 호출하시면 임원실에서 비교적 여유있게 회의할 수 있지만 이 외에는 회의실 확보가 힘들어 1층 커피숍에서 회의할 때도 많답니다. 그리고 사실 회의 공간뿐 아니라 제 자리도 너무 좁네요. 사실 창가 쪽 좋은 자리들은 항상 고참들 몫이라 저 같은 대리나 사원들은 항상 부장님 앞 쪽이라서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은 출산 후라 그나마 몸이 가볍지 출산 전에는 몸이 무거워 힘들어서 휴.. 언제쯤 저도 과장을 달고 창가 쪽 넓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 💡 출근 전쟁 : 8시 30분까지 출근 완료

우리 회사도 다른 회사처럼 9시 까지 출근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장님이 일찍 나오시는 편이라 직원들도 적어도 8시 반까지 출근하는 분위기예요. 그나마 저는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셔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 다른 여직원은 출근하러 아이 데려다주려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도 출근은 역시 힘들어요. 저희 집이 대중교통을 타기 힘든 곳이라 항상 차를 몰고 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에 1대만 주차가능해서 저는 직장 옆 사설주차장에 주차하고 15분 넘게 걸어야 해요. 지금은 출산 후라 그나마 몸이 가볍지 출산 전에는 몸이 무거워 힘들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회사에서 임신부를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